

# 광주시, 시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성과 ‘톡톡’

### 충장동·농성동 2곳 마무리 방문객 증가·생활여건 개선 양동·송정2 등 8곳 올 마무리 2025년까지 18곳 5881억 투입

광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4년 국토부 공모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18개 지역이 선정되면서 국비 1481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881억원을 투입, 도시공간을 새롭게 창출하고 있다.

이중 2개 지역의 사업이 완료됐으며, 올해 8개 지역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사업이 끝난 동구 충장동, 서구 농성동 등은 도심 활력 회복의 중심점 역할을 하

고 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동구 충장동은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 주민 의견을 반영한 푸른마을공동체센터·미로센터·충장22 등 거점시설이 구축됐으며, 해당 장소에 16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업비 77억원이 투입된 서구 농성동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은 상상만개 커뮤니티센터·벚꽃이야기길·안전가로 등을 조성하고 노후주택 112호를 정비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16개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 △지역자산 활용 △주민 참여 확대 △지역별 관계사업 통합·연계 등을 사업

방향으로 설정하고, 도시 쇠퇴에 대응한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양동·송정2동·동명1동·농성1동·사직동·임동·산수동·방림2동 등 8개 지역의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도시활력 회복의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동구 동명1동 재생사업은 234억원을 들여 밀집한 문화예술자원과 연계, 노후 주거 환경정비·주민주도 공동체회복·청년유입 활성화 등을 진행한다. 옛 읍성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동밖어울림센터·동명공간·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통할 예정이다.

남구 사직동 더 천년 사직 리뉴얼 선비골 사업은 221억원을 들여 쇠락한 사직공원 일대 거주 지역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남대·북구청, 양림동 등 8개 지역은 2024~2025년에 사업을 추진한다.

북구 전남대 주변 대학타운형 사업은 2024년까지 452억원을 들여 청년창업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시설인 행복어울림센터·잠지공원·잠지공연장 등 청년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문화거리를 조성한다.

광주시는 지원 규모 축소 등 변화된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도시재생사업이 지속하도록 디지털·정책 간 융합·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지역에 적합한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

다. 체계적인 도시재생과제를 발굴·관리하기 위해 도시재생전략 보완, 지역별 관리카드제 도입, 성과보고회 정례화, 도시재생센터 기능 강화 등도 추진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지속가능하도록 주민주도로 운영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준영 광주시신활력추진본부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이를 통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며 “도시재생사업의 성패가 주민 참여에 달려 있는 만큼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 강 시장 “노후상수관망 정비, 광역시 확대” 건의

### 한화진 장관 용연정수장 방문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3일 기후 위기에 따른 가뭄 중장기 대책과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한화진 환경부장관·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과 함께 광주 동구 용연정수장을 방문, 상수도 생산 현황과 광주시 물 수요 관리·누수량 저감 대책 등 가뭄 극복 대책을 보고받고 용연정수장 시설을 점검했다.

앞서 강 시장은 한 장관과의 차담에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도관 정비와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긴급누수탐사·블록시스템 구축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누수율이 높은 시·군에만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특·광역시

시에는 지원이 없었다. 광주시는 노후 상수도관망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누수로 낭비되는 많은 양의 수돗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시장은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노후 시설과 긴급 누수탐사·복구를 위한 긴급 사업비 50억 원의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또 △황룡강 장로습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실효성 제고와 조기 착공 등도 건의했다.

한 장관은 “추가 대책을 더 고민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광주시와 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상수도관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으로 정비가 시급하지만,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시·군에 한해 지원하고 있어 특·광역시로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지 기자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 전남 방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3일 전남도청 접견실에서 정주현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 회장 및 임원진과 오는 10월 목포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해외동포선수단 참가 관련 지원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종합경기장 등 65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전남도 제공

## 귀농귀촌 길잡이... 전남도 ‘농촌서 살아가기’ 전국 첫 운영

### 보성 다향울림촌 마을 시작 귀농·귀촌인 성공정착 지원

전남도가 ‘농촌에서 살아가기’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의 농촌정착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있다.

전남도는 ‘2023 농촌에서 살아가기’ 참가자 모집을 마친 보성 다향울림촌마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도가 앞서 추진한 ‘전남에서 먼저 살아가기’를 농림축산식품부가 벤치마킹해 2021년 신규 추진한 사업이

다. 도시민이 농촌에 살아보면서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 주민과 상호 소통하며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

전국 9개 광역시·도 114개 시·군 130개 마을에서 500여 가구 모집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참가자 모집을 마친 보성 다향울림촌에는 지난 2일부터 10명의 도시민 참가자들이 본격적인 체험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연수비를 개인당 월 30만원,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해 참가자가 농촌생

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각종 체험과 영농교육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예정이다.

농촌인력증계센터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단순 체험이 아닌 농촌에서 일하면서 스스로 자립하는 기회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19년 전남에서 살아가기 사업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참가한 도시민은 총 2154명으로 이 중 327명이 실제 전남으로 주소를 이전해 살고 있다.

최황지 기자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3일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 광주시당 제공

## 민주 광주시당 장애인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장애인위원회가 지난 3일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발대식을 열고 장애인 인권보장과 복지 향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발대식은 민주당 광주시당 이병훈(동남을) 위원장을 비롯해 강경식 시당 장애인위원장, 조연우 전국장애인위원장, 정병기 충남도당 장애인위원장,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핵심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애인위원회는 “민생 파탄과 야당 탄압이 심각하다”며 ‘장애인이 앞장선다, 검

찰독재 막아내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강경식 위원장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장애인화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민주당 광주시당 장애인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위원장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편하지 않을 권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몫”이라면서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무장애 도시, 장애인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나 기자

## 전남도, 올 양성평등 49개 과제 1162억 투입

### 경력 이음 바우처 등 중점 기금 공모사업 23건 선정

전남도가 올 한해 ‘성 평등한 전남 실현’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경력 이음 바우처를 비롯해 양성평등 정책 49개 과제에 1162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문금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남도 양성평등위원회’를 열어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기금공모사업 23건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선 ‘2023년 전라남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2022년 양성평등 기금 결산’, ‘2023년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은 여성가족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기초해 49개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경력단절 여성 경력 이음 바우처, 경력재출입 단정 지원, 가족친화 인증 확대 등이다.

양성평등 기금 결산 심의는 지난해 1년간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 운영된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 이뤄졌다.

양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난 1월 27일까지 공모해 접수한 28개 사업에 대해 심의했다.

기금 사용 목적, 지원 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자부담 능력 등을 검토해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최황지 기자